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 10월 26일

루가 제6주일

성 아베르키오스 주교사도대등자

성 글리케리아 순교자

제3조 /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갈라디아 1, 11-19 / 봉독서 287

· 복음경: 루가 8, 27-39 / 126, B 7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성모님께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로 하십시오. 아이들은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내리면, 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성모님께 간청하십시오. 성모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의 숨으로, 영혼의 방패로 아이들을 감싸고 어루만지며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사람들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가지는 가치를 믿으셨으며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응답을 굳이 바라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손과 얼굴, 혹은 하느님의 빛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으십시오!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당신은 진정으로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아십시오.”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인류 역사에서 영원한 원수로 존재해 온 이 두 집단의 관계는 불평등, 혁명, 전쟁, 사회 계층 갈등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해 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정치 사회 제도로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할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골로사이 3,5)입니다! 사실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기보다는 조금도 잃지 않으려는 자이고, 가난한 자는 적게 소유한 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성대 바실리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가난하다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수천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고,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그대의 욕망들은 그대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불법적으로라도 부를 얻으려는 욕심을,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는 자족과 절약의 마음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이 보여주는 금욕적 수행의 삶, 다시 말해 검소하고 소박하며 단순한 삶은 물질에 대한 마니교적인 경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

가려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필요한 집은 방이 세 개짜리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방이 열 개 있다면, 남는 일곱 개의 방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의 옷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두루마기는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의 집에서 삭고 있는 신발들은 맨발로 다니는 이들의 것입니다. 그대가 땅에 묻어둔 돈은 비참에 처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욕적 수행의 삶은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원을 다 소비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금욕적 수행의 삶은 우리를 개인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상은 불필요한 것들을 탐욕으로 집착하는 이기주의 대신에 우리 이웃의 근본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두게 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욕적 수행의 삶은 자연 환경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것을 또한 방지해 줄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하느님의 섭리

삶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굳세며 변함없이 평화로워야 한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힘을 넘어서면 설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의 섭리가 그 어려움들을 더 많이 극복해준다. 니체(F. W. 니체, 1844-1900)는 “만일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산다면, 더 많은 결혼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을 터인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편 133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이대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1절)

히브리 원어에서 ‘한데(함께)’라는 단어는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며, 도리어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일치와 평화 속에서 공동의 앞날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니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면서 하나로 일치하여 있다면, 공동인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를 끼칠수 있는 그 어떤 불화와 다툼, 의견 충돌, 차이도 없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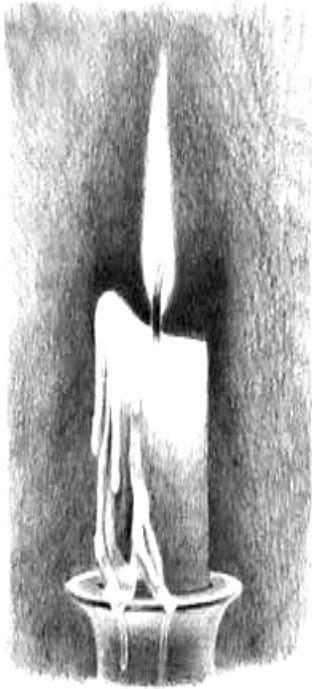


▷ 위의 글은 시리아 알레포의 대주교인 바울로 (야지기) 대주교(안티오키아 총대주교청)가 쓴 것이다. 바울로 대주교는 2013년 4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세력에게 납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주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14일(토)에 추로자 마리아와 박 요안나가 로마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된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 가을 바자회

오늘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가을 체육대회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성 바울로 성당 신도 친교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5일 주일 성찬예배 후에 성당 앞에 위치한 이화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겁고,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간 예식

- 10월 26일(목) 성 디미트리오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